

‘See-KAIST 2011’ 융합과학 체험활동 보고서

인적사항	전북기전여자고등학교 2학년 7반 21번 이름 : 전 찬미		
활동 일시	2011년 11월 4일(금) 10:00-15:00(5시간)		
실시 장소	KAIST 대전캠퍼스내 스포츠 콤플렉스 1,2층 Lobby(N3 건물)		
활동 주제	바이오뇌공학과 탐방		
체험 활동 주요 내용	<p>아침부터 여러학교가 모여 버스에 나눠타고 카이스트에 가던 길은 나를 한껏 들뜨게 하였다. 전북융합과학연구회장이라시던 안숙 선생님의 지도하에, 진로를 찾길 바라며 캠퍼스에 들어섰다. 처음 들어선 곳이라 그런지 낯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이번 전시회에서 나는 '바이오 및 뇌공학과'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. 처음으로 체험한 부스는 아니었지만 나의 흥미를 자극한 것은 바로 뇌연구!! 생물시간에 책으로 배우던 뇌가 아닌, 병원에서 흔히 찍는 CT사진이 아닌 과학 그 자체의 뇌를 접한 건 처음이었다. 부스벽면에 붙어있던 게시물은 다 영어로 쓰여있어서 나를 당황시켰으나,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신덕에 나를 당황시켰으나,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신덕에 재밌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. 이 부스에서는 실생활에서 자극 듣는 CT촬영 기법의 원리를 배웠다. MRI와의 차이정도 알게 되었다. 사소한 것이지만 제대로 알게 된 것에 큰 기쁨을 느꼈다. 주된 내용은 '근적외선 분광분석법'을 이용한 뇌의 헤모글로빈 산소농도변화를 분석한 것이었는데, 글을 읽을때, 말을 할때, 감정을 느낄때, MP3를 들을 때 등 각 상황에 따라 활성화되는 뇌의 특정 각자 다르게 나타났다. 이 말의 뜻은 뇌가 분업화 되어있어서 각자의 상황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뜻이었다. 이 뜻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, 치매환자와 정상인의 뇌 사진을 보여주셨다. 정말 신기하게도 치매환자와 정상인간의 뇌는 확연히 달랐다. 나의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, 생각을 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느끼니 우리몸이 정말 신기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했다.</p>		
활동 후 느낀점	<p>역시 과학은 책보다 실험이나 체험으로 배우는 것이 더욱 유익한 것 같다. 과학을 어렵게만 느꼈었는데 오늘 체험으로 많은 것을 느꼈다. 이공계의 학과들이 많고, 전문화되어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두렵기도했는데 오늘 구체적 학과에 대해 관심과 흥미가 생긴 것 같다. 내 생각 속의 카이스트는 무한 경쟁구도속에 냉정하고 바쁠 거 같았는데 재미있는 실험이나 관찰,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(그 중에서 오늘 본 인디밴드의 공연!! 환상적이었다) 자유롭고 여유로웠다. 벤치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볼 카이스트는 감탄할 정도로 멋졌다. 운동이면 운동, 자전거면 자전거 등 굉장히 여유로웠다. 오늘 체험은 나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고 새로운 도전의식도 불어넣어준 것 같다. 피곤한 것보다 더 ~욱 유익했었다 ♡. 기회가 된다면 또 가봐야겠다!</p>		
지도교사 평가	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(O) 보람 있게 매우 잘함 <input type="radio"/> () 활동이 보편적임	<input type="radio"/> () 대체로 잘함 <input type="radio"/> () 체험활동이 미약함	지도 교사 서명 <div>김 경 희</div>
위와 같이 체험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2011년 11월 4일 전북융합과학연구회장			

